

통계로 읽는 한국출판계 변천사

발행종수 30배, 출판사 150여개에서 1만여개로 비약 발전

1946년 6월 6일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청록파 시인들의 시집 《청록집》은 (A5, 반양장, 116면) 30원이었다. 1995년 6월 10일 민음사에서 펴낸 에드거 앨런 포의 시집 《애너벨리》(A5, 114면)는 3500원이다. 그간의 화폐 가치 변화를 무시하고 비슷한 종류와 면수를 지닌 이 두 책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50년이 지난 최근에 나온 책이 117배 가량 비싼 셈이다.

46년말 통계로 약 1천종에 불과했던 우리 출판물 발행종수는 50년이 지난 1994년말 현재 2만9564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백만부에 불과하던 발행부수도 1억 5232만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다. 출판사 수도 또한 150여개에서 94년말 현재 1만 32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방직후 출발, 한국현대사의 흐름에 몸을 싣고 부침을 거듭하면서 제 터를 지키고 키워왔던 우리 출판 50년의 모습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해방, 전쟁 격동속에 부침 심했던 출판계

“해방초년인 1945년은 해방의 기쁨에 도취되었다고나 할까...도서로는 정음사에서 지형으로 발행한 《한글말본》《조선사》 등 수의십중에 불과했다.”(최창집, 출판대감, 1948)

이렇게 시작된 출판은 6.25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1천여종 안팎을 넘나들며 큰 변화없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도서 1종당 발행부수는 초기 1946년에는 5천부에서 1만부에 이르던 것이 후기에는 1천부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반해 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는데 해방 직후 평균 3원이던 것이 48년 후반기에 이르러 334원에 육박, 111배나 상승하였다. 15배에 달하던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폭으로 책값이 오른 것은 극심한 용지난 등에 영향받은 듯하다.

6.25전쟁은 외형적으로나마 체계를 갖춰 가던 출판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49년 847개에 달했던 출판사 중 9.28 수복후 등록된 출판사는 185개에 그쳤다. 전쟁의 후유증 탓인지 50년대는 도서발행종수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52년에는 1391종, 57년에는 1006종이 발행, 오히려 얼마간 감소되기까지 했다.

이 시기 출판사수나 책값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는 찾기 힘들다. 1952년 당시 공보처에서 무실적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

45년, 해방의 기쁨에 도취해 시작한

출판은 60년대의 경제부흥,

70년대 문고본 양산, 80년대 지속적

성장세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부침과 행보를 함께 했다.

46년말 약 1천종에 불과했던

발행 종수는 이제 3만종에 육박하고,

출판사수는 1만개사를 넘어 비약적

성장을 거듭한 출판계 앞에는 정보화

국제화의 과제가 놓여 있다.

이후 등록된 출판사수는 387개사였고 54년에는 무려 155사가 등록취소당해 584개사가 등록된 상태였다. 경기 침체, 전후 유통체계 마비와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1950년대 출판은 그야말로 ‘허덕이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58년 이후 일부 출판사에서 시도한 사전 및 기획 전집류의 출판 경향은 이러한 불황의 늪을 헤쳐나가려는 자구책이기도 했다.

문고본 양산 힘입어 1만종 돌파

1960년대는 경제성장정책이 시행되고 그 성과들이 이뤄졌으며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한다. 발행종수 추이를 보면 64년, 66년, 67년, 69년 네차례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1962년에는 발행종수가 4천종(만화포함)을 넘는데 이는 출판종수의 증가 외에도 출판사 등록취소대상을 종래 연간 1종에서 연간 2종으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한 마구잡이 출판이 늘어난 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실적 출판사로 취소된 출판사수는 61년 366개사, 62년에는 443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출판사수는 계속 증가해 69년에는 196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출판사 중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출판사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45년부터 63년까지 발간된 도서들의 분석을 통해 출판종수가 30종 이상인 출판사가 61개사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한국출판문화변천사》P206)는 우리 출판사

들의 실제 정황을 잘 보여준다.

한편, 58년부터 월부 외판제도를 바탕으로 활기를 띠게 된 전집 및 사전류 출판은 출판사를 종래의 소규모 경영에서 탈피하여 차츰 문화기업으로 키우는 큰 계기가 된다.

아울러 월부판매의 확대는 출판물의 양적인 증대에 기여했으며 기획, 편집, 제작, 장정 등의 기술향상에도 일조했다. 재미있는 것은 유사한 기획 전집의 양산. 예를 들어 박우사의 《인물한국사》(전5권)과 신구문화사의 《한국의 인간상》, 민중서림의 《한국문학전집》과 신구문화사의 《한국문학전집》 등이 있고 특히 ‘007시리즈’ 번역물은 7개 출판사에서 각각 만 권씩이나 양산하여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도서발행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업은 1968년부터 비롯되는데 60년대 후반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발행부수의 증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소비수준이 향상됐다고 하나 아직 서적 구매력까지 연결되지 못했으며 또 당시 책값이 62년 137원에서 69년 460원으로 3배가 넘게 뛰어 물가상승률 2.4배를 넘어선 것도 독자들의 구매력을 낮추는 한 요인이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출판계는 문고본의 양산으로 시작된다. 72년 삼성문화재단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삼성문화문고’와 을유문고(을유문화사, 170종), 정음문고(정음사, 80종, 20만부), 박영문고(박영사, 50종, 12만부) 등 78년에는 무려 30여 출판사에서 1천여 종을 기록했다.

문고본의 활기에 힘입어 76년 발행종수는 1만종을 돌파, 1만3334종을 기록하게 된다. 이 때의 도서는 분야별로도 다양해져 기술 도서와 학술연구서 문학·예술·취미·오락서에 이르기까지 출판영역이 확대되었다.

70년대 출판의 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글세대의 등장이다. 70년대 후반에는 철학이나 사회과학분야 서적들까지도 대부분 한글로만 조판하고 체제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종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던 일어판 번역서들이 출판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때문인지 총 출판발행종수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972년 24.2%, 1978년 15.1%)

발행량의 증가는 이른바 베스트셀러 부수에도 변화를 가져와 종래에는 수천부가 기준

이었던 것이 70년대 후반에 들면서부터 5만부 이상으로 올라갔다.

전 시기에 비해 도서판매율이 늘어난 것에 책값이 기여한 바는 그다지 큰 것같지는 않다. 71년도 옷값을 58.6, 교육비를 55.2로 놓았을 때 책값은 74.4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책값은 그대로 이어져 79년도 피복비 지수는 226, 교육비는 230.2인데 비해 책값 지수는 274.6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유신으로 상징되는 70년대에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조치가 계속되었는데 72년 유신선포와 함께 당시 전체 출판사의 절반에 가까운 1064개 출판사를 무실적 또는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등록 취소했다. 그러나 출판사수는 계속 증가하여 77년 1631개사, 78년 1920개사가 되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이나 언론계에서 쫓겨난 반독재세력의 출판계 참여는 우리 출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 성장세 불구 신간비중 날로 감소

80년대 초반 우리 출판은 순조로운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발행종수에 있어 80년에는 2만종을 넘었고, 83년에는 3만 3321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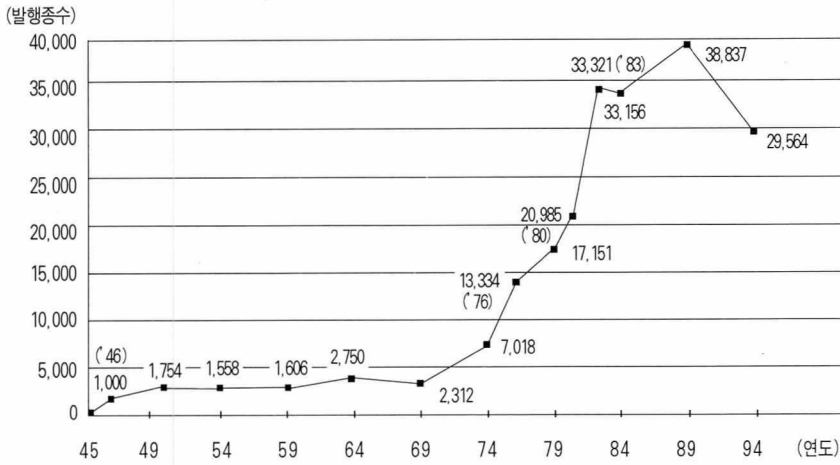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장곡선은 84년에 접어들면서 잠시 머뭇거리다. 84년 발행종수는 전년도보다 165종이 적은 3만3156종. 증별로 보면 인문과학분야와 전집분야, 아동분야가 저조했던 반면 순수과학이 전년에 비해 29.8%, 기술과학이 21.9%가 신장되는 등 이공계 도서의 출판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책값도 84년에 들어서 전년도보다 싸져 평균가격이 3635원(83년 4115)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면수의 감소(81년 340면, 83년 298, 84년 265)와 출판사간의 경쟁가열,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교육지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대 초·중반 구성비 추이를 통해 당시 우리 출판의 한 경향도 읽을 수 있다. 80년 발행종수에서 초판과 중판의 비율은 62:38, 85년은 59:41, 89년은 53:47로 날로 초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간의 비율이 미약함을 말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발행종수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발행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80년 약 6461만부이던 것이 83년 1억대를 넘어서 89

연도별 발행종수 추이



년에는 1억9722만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번역도서 추이도 눈여겨보길하다. 85년의 번역도서 종수는(4981) 84년(4036)에 비해 23.4% 증가했지만 86년(4448)에는 전년대비 10.7%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88년(3155)에는 전년대비 25.5%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저작권조약(UCC)가입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90년대 출판통계를 살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91년부터 통계의 집계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91년부터는 초판 및 개정판만 납본하게 되었다.

달라진 집계방식에 의한 통계자료를 통해 읽는 90년대 상반기 출판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94년에 발행된 신간도서는 총 2만 1천여종에 약 1억5천만부로서 이는 출판 50년 사상 최고의 수치이다. 이들 도서를 종별로 보면 기술과학 분야가 3887종에 이르러 93년 2986종보다 30.1%가 증가했으며, 세계화 및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어학분야가 전년대비 15.5%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수도 계속 증가하여 94년말 현재 1만325개사로 집계 되었다. 그러나 이들 출판사 중 1년에 1권 이상의 실적을 내는 출판사는 28.3%에 그치고 있어 우리 출판의 고질적인 영세성을 비추주고 있다.

88년 잠시 주춤했던 번역출판은 90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 94년의 경우 5064종으로 집계, 전체 발행 종수의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값의 추이는 90년 6322원에서 94년 8185원으로 5년간 1663원 인상된 것에 그쳐 여러가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책값의 인상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0년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출판계는 이제 매출액 규모 1조2천억원을 훨씬 넘어선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았듯 참신한 기획보다는 중판에 의존, 신간도서 비중이 낮고, 발행종수와 부수에서 학습참고서 비중이 높은 것, 출판사의 영세성에 기인한 무실적 출판사의 양산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해묵은 문제와 함께 우리 출판계는 정보화, 국제화라는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문화를 알리겠다는 지사적 사명감으로 시작됐던 출판의 전통과 아울러, "문화복지의 실체로서, 정보사회의 중추로서, 역동적인 역사변혁의 주체로서..." 출판에 임하겠다는 90년 '출판인 선언'의 다짐을 우리 출판 50년의 추이를 살피면서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 박남정 기자

광복이후 50년간의 출판통계

연도 구분	발행종수	발행부수	출판사	가격(원)	번역물(구성비)
1945	-	-	-	-	-
46	1,000	-	150	-	-
47	950	-	581	-	-
48	1,200	-	792	-	-
49	1,754	-	847	-	-
50	-	-	185	-	-
51	798	-	359	-	-
52	1,391	-	387	-	-
53	1,100	-	461	-	-
54	1,558	-	584	-	-
55	1,308	-	500	-	-
56	1,434	-	-	-	-
57	1,006	-	-	-	-
58	1,281	-	-	-	-
59	1,606	-	-	-	-
60	1,618	-	-	-	-
61	2,290	-	-	-	-
62	2,966	-	-	-	-
63	3,042	-	602	-	-
64	2,750	-	700	-	-
65	3,188	-	1,052	-	-
66	3,014	-	1,360	-	-
67	2,216	-	-	-	-
68	2,528	5,047,877	-	612	-
69	2,312	5,413,692	1,962	471	-
70	2,633	4,840,622	1,016	746	495(18.7)
71	2,917	6,429,726	1,171	942	526(22.7)
72	4,469	10,858,145	1,778	921	947(24.2)
73	7,123	15,761,524	936	1,060	1,207(19.8)
74	7,018	13,651,124	1,111	1,241	1,614(23)
75	9,225	24,418,058	1,076	1,276	1,910(20.7)
76	13,334	37,636,853	1,145	1,368	1,832(18.4)
77	14,375	37,811,790	1,631	1,571	1,589(17.5)
78	15,149	58,536,520	1,920	1,883	1,479(15.1)
79	17,151	60,063,952	-	2,814	1,748(15.7)
80	20,985	64,609,972	-	3,504	2,159(16.5)
81	23,983	73,127,664	2,176	4,027	2,425(17.8)
82	29,190	88,326,989	2,191	4,242	3,299(18.7)
83	33,321	104,411,111	2,323	4,115	3,923(21.1)
84	33,156	110,498,770	2,519	3,635	4,036(21.1)
85	33,743	114,970,687	2,665	4,582	4,981(25.2)
86	37,411	145,100,138	2,635	4,419	4,448(20.1)
87	38,301	155,801,083	3,004	4,412	4,235(18.8)
88	38,454	167,258,201	4,397	4,950	3,155(14.1)
89	38,837	197,224,979	5,109	5,323	3,122(15.0)
90	41,712	241,839,337	6,296	6,322	3,366(16.1)
91	22,769	134,616,495	6,607	6,901	3,901(17.1)
92	24,783	136,752,198	7,390	7,191	4,559(18.4)
93	26,304	139,221,724	8,380	7,591	4,793(18.2)
94	29,564	152,326,103	10,325	8,185	5,064(17.1)

*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임

* 발행종수·부수는 문화체육부 납본 통계임

* 만화·팝플릿 제외, 발행부수는 1968년부터 집계

* 1991년부터는 발행종수 초판과 개정판만 집계

* 출판사수의 정확한 집계는 1970년대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 통계는 《한국출판문화변천사》(백운관·부길만/타래/1995)참조